

이노리이와와 고마다테이와

1185년에 일어났던 야시마 전투라는 중요한 사건은 일본 역사에서 전설이 되었으며, 야시마 주변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. 무레의 마을은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 싸워 미나모토 가문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난, 겐페이 전투(1180년~1185년)라는 역사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. 무레에 있는 ‘이노리이와’와 ‘고마다테이와’는 둘 다 미나모토 가문의 무장이었던 나스노 요이치(1169~1232년이라고 전해짐)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

전투를 하던 중, 다이라 가문의 배에 타고 있던 궁녀가 막대 끝에 단 부채를 휘두르며 육지에 있던 미나모토 가문의 군을 도발했습니다. 이에 응한 요이치는 우선 기도를 올린 후 활을 겨누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기도를 올린 장소는 ‘이노리이와’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이치는 말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 활을 들어 올려 쏘았는데, 기적적으로 부채에 명중했다고 합니다. 고마다테이와는 그 활을 쏜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마다테는 ‘말 위에 서다’라는 뜻으로 등자 위에 서서 활을 쏘았다는 설이 있습니다.